

## 14장\_어린이문화 ‘사과’

### 소녀들의 희망 찾기

#### 가을이 깊어 가는 교정

햇살이 눈부신 토요일 아침, 지하철 역에서 내려 찾길을 뒤로 하고 고즈넉한 오솔길을 따라 언덕을 올라간다. 자동차 소음에 묻혀 들을 수 없었던 도심의 새소리가 들려올 무렵, 잘 손질된 나무들이 방문객을 반기는 언덕 끝에는 아름다운 정원을 품고 있는 아담한 중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조용한 교정에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선가 여학생들 특유의 재잘거림이 들려오는 듯 하다.

#### 비슷하지만 달라!

교무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곳은 2 층의 종교실. 조용한 실내로 멀티미디어 창작 교육을 담당한 선생님들이 카메라와 만들기 재료를 가지고 먼저 들어오신다.

잠시 후 주황색 생활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인사를 하며 들어선다. 열서너 살부터 20 대 초반의 여학생까지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스무 명 남짓한 소녀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원을 그리며 둘러앉고, 일주일 동안의 안부와 일상의 변화들을 묻는 인사가 오가고 나면 선생님의 제안으로 짧은 명상 시간이 이어진다. 두시간의 짧은 미디어 수업에 앞서 소녀들이 갖는

차분한 침묵의 시간은 모든 순간을 의미와 정성으로 준비하자는 선생님들의 배려이기도 하다.

명상이 끝나고 선생님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아이들에게 물어본다. 아이들은 제각각 일주일 동안 벌어진 나름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풀어놓는다. 또래 소녀들과 다를 바 없는 수다와 웃음소리가 넘쳐난다. 멀티미디어 창작교실이 처음 시작된 6 개월 전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해볼까?”

“우린 다 똑같은 밥 먹고, 시간표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요?”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각각 달라.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잖아.”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금요일에 미리 생각해볼게요.”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 자유롭지만 답답해

교실, 기숙사라는 이름대신 학과장, 신입방, 생활관이 있는 이 소년원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꼭 짜인 일정에 맞춰 생활을 해야 하고, 자유시간은 한시간 남짓 주어진다.

학생들은 자유롭지만 답답한 생활을 해야 한다. 짧게는 몇 개월부터 1 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공부도 할 수 있고, 직업교육도 받고, 자격증 취득도 할 수 있어서 불우했던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바깥생활보다 물리적으로 더 나은 환경이지만 그렇다고 당연히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진 환경이기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후회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바쁜 일과 속에 해야 할 공부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몇 달의 적응기가 지나기까지 아이들은 원망과 후회와 좌절을 반복하며 스스로 그늘 속에 자리를 잡는다. 하지만 빠르게 혹은 느리게, 속도만 다를 뿐 아이들은 아이들 특유의 생명력으로 활기를 찾는다.

멀티미디어 창작교실은 그런 아이들을 독려하고 혹은 그늘에서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이 학교를 선택했다.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가슴 속 이야기를 꺼내놓았고, 같은 고민 혹은 다른 고민을 나누며 위안과 용기를 얻었다.

“그때,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 안 오는 건데!”

“나도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남 탓할 일이 아니야.”

“그래, 내가 문제지. 친구가 문제가 아니지.”

“우리, 생활도 열심히 잘 하고, 자격증도 많이 따고. 아자! 아자! 파이팅!”

##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아이들은 두 개의 모둠으로 나뉘어 두 개의 이야기를 만들기로 했다. 이곳에서 생활하며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하며 아이디어를 얻고 함께 아이디어에 살을 붙이고 대사를 정리했다. 거친 대사가 있었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수정하고,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며 창작의 과정을 즐기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완성된 후에는 천과 종이를 오리고 붙여서 오브제를 만들어 표현하거나 그림을 그려 이야기를 완성했다. 그 과정에서 지도나 학습은 필요하지 않았다. 표현대상의 역할과 주제는 정해져 있으나 표현은 자유롭고 창의적이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예술행위의 결과는 ‘추리닝바람’, ‘세탁기에서 생긴 일’이라는 풍자와 위트 넘치는 작품으로 탄생하는가 하면, ‘꿈을 향한 우리’ 모두의 ‘굿바이, 정심!’처럼 진솔한 고백이 담긴 진지한 작품이 나오기도 했다.

### ‘꿈을 향한 우리’ 모두의 ‘굿바이, 정심!’

“여기서 지내다 보면 바깥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러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들은 이런 저런 죄명을 받고 왔고, 관사들에게는 용서를 받았는데, 바깥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다시 살아갈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야.”

“아무튼 이제 1년이 좀 넘게 남았다.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격증을 따는 것이다. 문서 실무, 워드, 정보기기, 파워포인트, 웹디자인…… 무슨 자격증이 그렇게도 많은지……”

“그런데 자격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되어 나가는 것이다. 나는 아직 철이 덜 들었다. 좀 더 얹전해져야겠다. 반성도 더 많이 해야겠다. 엄마가 불잡을 때 말 들을 걸…… 그때 놀지 말고 공부할 걸…… 그때 싸움이 붙었을 때 그냥 모른 채 할 걸…… 집에 잘 있을 걸…… 조금만 더 참을 걸…… 반복되는 후회 속에서 하루 하루가 간다. 조금씩 사람이 되어 가나보다.”

은희는 나가면 군대에 가고 싶단다. 요즘에는 여자 군인도 많아서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니지만 은희는 키가 작아 군대에 못 갈까 봐 걱정이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우유를 매일 1000ml 씩 먹을 거라고 한다. 밤에 문득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려 더 이상 보지 못할 때도 있다.  
밖에서는 더 힘들 걸 알면서도 너무 설레고 빨리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 **선생님, 또 오세요! 오시는 거죠?**

세 분 선생님과 네 분의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고 이야기한다.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소회할 수 있었는가 하면, 자신의 변화 과정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다고도 말한다. 처음에 말 한마디, 인사조차 나누지  
않던 아이들과 이웃 언니와 동생처럼 정을 나누게 되면서 ‘관계가 열리는’  
과정을 체험하는 것도 큰 보람이자 성과였다.

하지만 한편으로 선생님들로서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 그저  
이 사회에서 어른으로 살아가는 책임감을 다지는 것으로 무거운 마음을  
달랠 뿐이다.

### **오직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할 뿐**

멀티미디어 창작교실 선생님들이 이곳을 찾아오면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변화를 기대하며 세운 교육의 목표는 거창하거나 어려운 대신, 단순하고  
쉽지만 중요한 것이었다.

“아이들이 이 생활을 인정하게 하자. 없던 걸로 시침 떼고 살 수 없다.  
쿨하게 반성하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자.”

“잘못은 씻을 수 없고, 내 삶은 변화할 수 없다는 식의 부정으로 채워진 아이들에게 긍정을 심어주자.”

“공연을 통해서 자신의 작업을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격려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6 개월 동안 아이들은 ‘멀티미디어 창작교실’을 통해 선생님들의 목표, 그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긍정적인 생각,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태도, 인정 받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로 아이들은 유연하게 예술을 받아들이고 과정과 결과를 즐겼다. 그러는 동안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하는 선생님들의 고민도 사라졌다. 오히려 선생님들은 예술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배웠다. 아이들은 친구가 되려고 하는지, 가식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이들이다. 그러니 오히려 방법은 간단하다. 아이들에 대한 믿음만 가지면 된다. 우리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만 가지면 된다.

경기도 안양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멀티미디어 창작교실’

어린이문화 사과